

교과서·자습서 활용… 6학년 전과정 꼼꼼히 복습



예비 중학생 반면성 배치고사 대비 이렇게

중학교 입학을 앞둔 광주지역 예비 중1 학생들은 오는 7일 중학교 배정을 받고, 20일과 21일 배정된 중학교별로 반면성 배치고사를 치르게 된다.

반배치고사가 중학교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학교 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고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 첫 시험인 만큼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메가스터디 초중등부 사이트 '엠 베스트'의 도움으로 예비 중학생을 위한 반배치고사 내용과 시험 대비법을 알아봤다.

◇첫 인상 심어주는 첫 시험=반 배치고사는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평가하고, 성적이 좋거나 나쁜 학생이 특정 반

에 몰리지 않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시험시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일과 21일 차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험 날짜와 시간, 과목, 범위, 준비물 등 시험 관련 내용은 예비소집일인 10일 배정받은 중학교에서 알려준다. 따라서 예비소집일에는 반배치고사 시험 일정과 준비사항 등을 메모하기 위해 간단한 필기도구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6학년때 배운 교과 내용으로 한정된다. 중학교 과정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어 출제되지 않는다. 성적은 이달 말쯤 공개되지만 성적표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에도

중학생 되는 첫 관문… 시험과목 미리 파악해야

개념정리 후 기출문제 풀이로 응용력 키울 것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중하위권 학생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부담을 안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이 좋으면 향후 중학교 3년간 학습에 동기부여가 된다.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난 6년간의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정리·점검할 기회이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다.

◇교과 개념정리·기출문제 풀이 =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중학교 과정에 그대로 이어져 심화되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수학은 공식만 외울 경우 응용문제가 나오면 당황해 풀지 못할 수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 시험범위는 대부분 6학년 전 범위다.

우선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 자습서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전체적으로 복습해야 한다. 특히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중학교 과정에 그대로 이어져 심화되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다면 이달 말에 통지되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중학교 입학 이후의 공부다.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약으로 보나 질로 보나 큰 차이가 있다. 수업시간이 5분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난다.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출문제와 시험 현황은 배정학교 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배치고사의 전반적인 수준은 광이하지만 간혹 나이도가 높은 문제를 포함시켜 우등생을 가려내는 학교도 있으므로, 고득점을 받고 싶은 학생이라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다면 이달 말에 통지되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중학교 입학 이후의 공부다.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약으로 보나 질로 보나 큰 차이가 있다. 수업시간이 5분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잘나가네’

지적분야 취업률 전국 1위

경기침체의 악화와 취업난 속에서도 유독 잘 나가는 학과가 있다.

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는 전공 분야의 특수성 탓에 취업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치밀한 맞춤식 교육과 국가의 정책적 사업 분야라는 점이 맞물려 각별한 성과를 내고 있다.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통계에서 지적 분야 전국 취업률(80%)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학 토지정보관리과 졸업생은 현재 지적공무원에 230명, 대한지적공사에 2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광주·전남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도 5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적분야 경우 경쟁률이 4대 1 정도로 일반 행정직에 비해 크게 낮아 상대적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의 연차적 수립계획

을 보면 2014년에 402명, 2015년에 372명을 채용하는 등 향후 이 분야 전문인력을 3000여명 이상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토지정보관리과의 전망은 타 학과에 비해 우월한 상황이다.

이왕무 토지정보관리과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19년에 걸쳐 1조2천억원의 예산과 1만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지적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왕무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새날학교 ‘그룹홈 마련 후원의 밤’… 6일 계수초교서

문화청소년 대안학교인 광주세남학교(교장 이천영)는 오는 6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 강당에서 ‘그룹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에 중도 입국한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오갈데 없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다. 또 새날학교 후원자와 단체·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후원 문의 062-943-8932, 062-383-9061.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일보 2014년 2월 4일 화요일

2면

2면